



▲ 제약/바이오

Analyst **이태영**

02. 6098-6658

taeyoung.lee@meritz.co.kr

Meritz 제약/바이오 Weekly

2018 AACR 관전 포인트

[TY's Pick] - 2018 AACR Preview

미국 시카고에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8년 미국암학회(AACR) 총회에 전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선 집중. 특히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타이틀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화두. 비소세포폐암(NSCLC)은 전체 폐암 발병 환자의 80% 이상이 속하는 질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

1) BMS가 종양변이부담이 높은 환자를 대상 옹디보와 여보이를 병용하는 방식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예정. 주 평가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의 중간 데이터가 키트루다와 화학항암제를 병용한 것 보다 좋은 데이터를 도출할 경우 시장은 새로운 국면 맞이. 2) Merck는 키트루다와 기존의 화학항암제를 병용하는 방식의 임상3상 데이터 발표 예정. 이를 통해 밝혀질 생존율 데이터가 다른 치료 방식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가 중요. 또한 반응 환자들의 PD-L1발현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장은 또 다시 세분화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Merck는 지난주 PD-L1 발현율 1%이상 환자 대상 키트루다 단독요법 결과가 유의미했음을 발표하며 이 시장의 선두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3) Roche는 아바스틴과 면역관문억제제 테센트릭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예정. 이미 지난 3월 생존율의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현재 국내 폐암 치료제 개발 회사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오스코텍)으로 모두EGFR T790M 변이 양성 환자를 타겟. 이중 한미약품의 올리타는 결국 경쟁약물의 우수한 효과와 빠른 허가에 밀려 개발 중단.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임상 1/2상을 진행 중인 YH25448은 기본적으로 경쟁약물인 AstraZeneca의 타그리스 대비 동등성 혹은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환경 직면. 경쟁약물의 개발 현황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

[지난주 탐방] - 디에이치피코리아(KQ;131030)

일회용 인공점안제 국내 점유율 40%로 1위 업체. 경쟁사는 휴온스, 태준제약, 한림제약, 유니메드제약 등. 매출의 대부분은 히알루론산 일회용 인공점안제(0.8ml-ETC). 올해 1월 EU-GMP실사를 받았으며 6월말 경에 EU-GMP 취득 전망. EU-GMP 취득하여 더 높은 약가를 받는 해외 점안제 시장에 진출 계획. 향후 상황에 따라 보유한 현금 500억원으로 CAPA증설 고려하고 있음. 최근 일회용 점안제의 반복사용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진율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리캡 금지(일회용 점안제의 뚜껑을 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및 용량감소에 대한 규제 측면의 이슈 존재

[TY's Pick] 2018 AACR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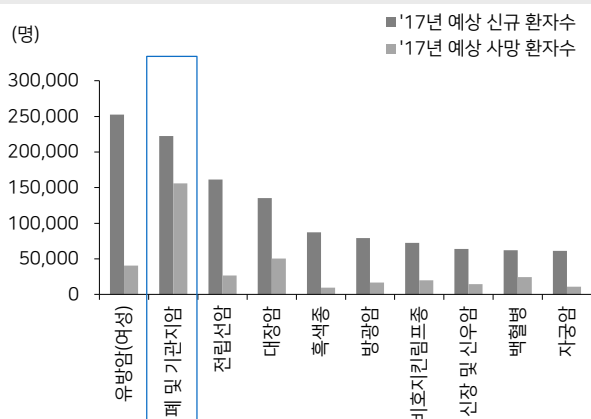
미국 시카고에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암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 2018년 총회에 전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 특히 이목을 이끌고 있는 관전 포인트를 소개한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의 왕좌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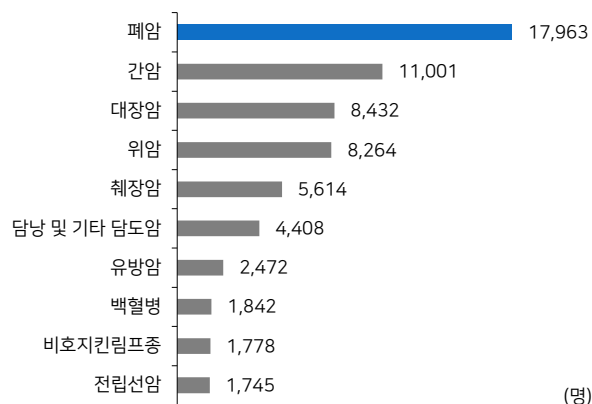
환자가 많다는 점, 새로운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 때문에 폐암 치료제는 전체 암 치료제 시장의 약 20%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발병 환자의 80%이상이 걸리는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개발 열기가 가장 뜨거운 분야다.

그림1 2017년 미국의 암 발병 및 암종별 사망에 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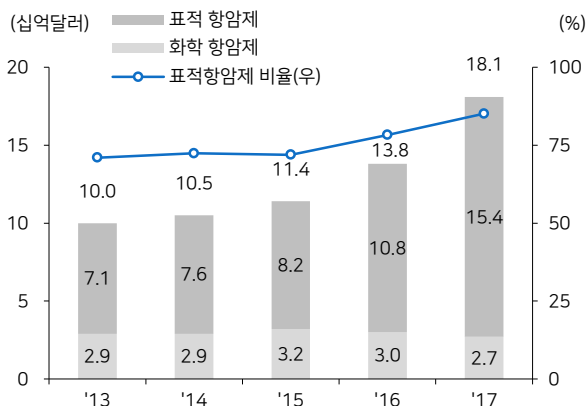
자료: NCI,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16년 국내 암종별 사망자수



자료: 국가암정보센터,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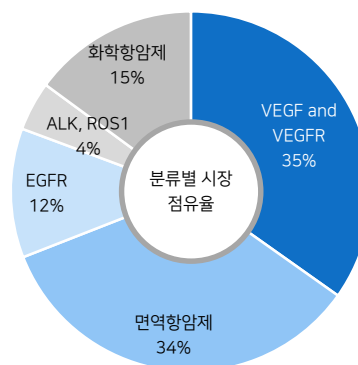
그림3 NSCLC 항암제 시장 추이



주: 전년도 2분기부터 해당년도 1분기까지 1년간 누적 판매량

자료: NRDD,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17년 치료제 분류별 시장 점유율



자료: NRDD,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바이오마커 활용 치료 부각되며
치료 가이드라인 매우 복잡

발병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예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치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암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제약업체의 전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특정 바이오마커 (EGFR, ALK, PD-L1)의 발현 여부에 따라 추천되는 1차 치료제가 달라졌으며, EGFR 분야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변이(T790M)를 타겟하는 치료제까지 등장한 상태다.

표1 2006년 기준 비소세포폐암 치료 가이드라인

		First Line		Second Line
조직검사	편평상피세포암	Chemo		Chemo
		Gefitinib		Chemo
	비편평상피세포암	EGFR+	Erlotinib Bevacizumab base	Chemo Chemo
		Others	Chemo	Erlotinib

자료: IQVIA, NCC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표2 2016년 기준 비소세포폐암 치료 가이드라인

		First Line		Second Line		Thrid Line	Fourth Line
조직검사	편평상피세포암	Chemo Portrazza		Afatinib Nivolumab		Chemo Chemo	
	비편평상피세포암	EGFR+	Afatinib Gefitinib Erlotinib	EGFR T790M+	Osimeertinib Chemo	Chemo Atezolizumab Nivolumab	Chemo Chemo
				EGFR T790M-	Chemo Erlotinib Pembrolizumab	Pembrolizumab	Chemo
		ALK+	Crizotinib	Alectinib Ceritinib Chemo Crizotinib Chemo Pembrolizumab		Chemo Atezolizumab Nivolumab Alectinib Ceritinib Pembrolizumab	Chemo Chemo Chemo Chemo Chemo
				Nivolumab Atezolizumab		Chemo Chemo	
		PD-L1+	Pembrolizumab	Ramucirumab base Erlotinib		Chemo Chemo	
		EGFR-/ALK-/PD-L1-	Bevacizumab base				
		Others	nab paclitaxel	Chemo			

자료: IQVIA, NCC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면역억관문억제제 시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Merck와 BMS, 그리고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Roche가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발표 예정인 데이터들은 모두 병용요법으로, 기존 방식대비 우월성을 입증하여 1차치료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임상의 결과다.

BMS,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으로 반격 (CheckMate227)

BMS: TMB High 환자 대상
1차 치료제 도전

BMS는 면역관문억제제 개발의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폐암 분야에서는 Merck의 키트루다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BMS가 옵디보와 여보이를 병용하는 방식을 통해 반격을 노린다. 종양변이부담(tumor mutation burden; TMB)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CheckMate227임상의 주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PFS)의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이 결과가 키트루다와 화학항암제를 병용한 것 보다 좋은 데이터를 도출할 경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Merck, 키트루다+Chemo 병용요법으로 수성 (Keynote189)

Merck: PD-L1 1% 이상 발현 시
효과 입증으로 시장 확대. 이제는
병용 결과에 주목

Merck는 키트루다와 기존의 화학항암제를 병용하는 방식을 확인중인 본 요법의 임상 2상을 통해 지난 2017년 5월 신속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 조건부 허가를 실제 허가로 확정 짓는 임상3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밝혀질 생존율 데이터가 다른 치료 방식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가에 따라 왕좌를 지켜낼 수 있을 지가 판명된다. 또한 반응 환자들의 PD-L1 발현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장이 또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Merck는 지난주 PD-L1 발현율 1%이상 환자 대상 키트루다 단독요법 결과가 유의미했음을 발표하며 이 시장의 선두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Roche, 테센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으로 도전장 (IMpower150)

Roche: 기존의 임상 데이터 대비
차별 점 증명해야 함

Roche는 자사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아바스틴과 면역관문억제제 테센트릭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 생존율의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내용에서 PD-L1 발현율에 따라 효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키트루다 병용요법과 마찬가지로 시장 내에서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표3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임상 세션에서 발표될 비소세포폐암 관련 임상 결과

발표일시 (현지시간)	개발사	약물	임상별칭	비고
'18.4.16 10:35	Merck	Keytruda + chemo	Keynote189	PD-L1 발현 수준에 따른 반응 차이
'18.4.16 11:05	Roche	Tecentriq + Avastin + chemo	IMpower150	PD-L1 발현 수준에 따른 반응 차이
'18.4.16 11:35	BMS	Opdivo + Yervoy	CheckMate227	TMB high 환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더 좋은가?

자료: AACR,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국내 폐암 치료제 개발 환경에 전하는 시사점

경쟁사의 개발 현황에 주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해야

현재 국내 폐암 치료제 개발 회사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오스코텍)으로 모두 EGFR T790M 변이 양성 환자를 타겟으로 한다. 이중 한미약품의 올리타는 결국 경쟁약물의 우수한 효과와 빠른 허가에 밀려 개발이 중단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임상 1/2상을 진행 중인 YH25448은 기본적으로 경쟁약물인 AstraZeneca의 타그리소 대비 동등성 혹은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도 뇌전이 환자 대상 효과 입증을 통해 기존 약물 대비 우수성을 증명해 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타그리소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약물과의 병용요법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임상 1/2상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임상에 투자가 진행될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표4 경쟁 약물 타그리소가 진행중인 주요 임상

임상시험 별칭	목적	디자인	모집 환자 수	상태
FLAURA	EGFR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가능성 확인	기존 약물인 Erlotinib, Gefitinib 과의 Head to head 임상	556	임상 3상 주요 평가 변수 만족(성공)
TATTON	기존 약물 실패한 EGFR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	Targrisso + Imfinzi Targrisso + savolitinib Targrisso + selumetinib	308	1b상 진행 중

자료: AstraZenec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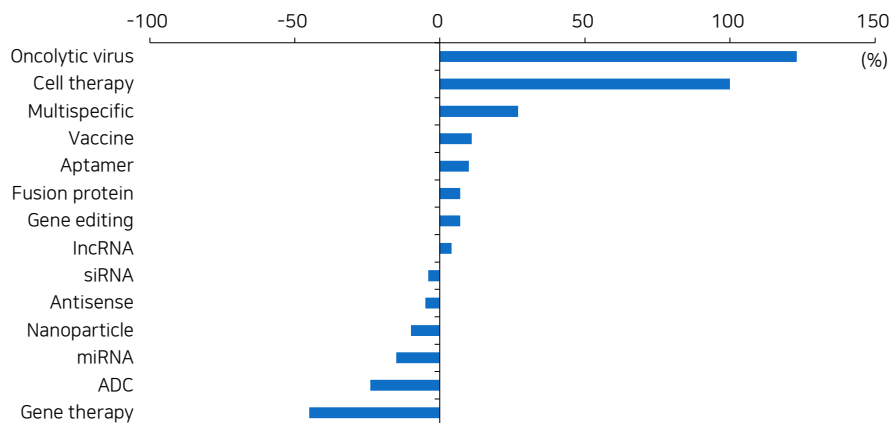
항암바이러스, 세포치료제 이용한 항암제 개발 급증

시장의 관심을 이끄는 신기술

일반적으로 AACR은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신기술이 무엇 인지를 가늠하기 좋다. 이번 AACR에서 신약 개발 방식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은 항암바이러스나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방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항암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년 대비 10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 외에도 다중 표적 항암제나 항암 백신, 압타머를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발표는 50%가까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 부분의 유전자 치료제 관련 연구가 전임상에서 임상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항암바이러스나 세포치료제의 경우 국내에서도 활발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국내 업체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장점 혹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다.

그림5 2017년 대비 달라진 신약 개발 방식에 대한 발표 수



자료: AACR,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NEWS] 국내 및 글로벌 주요 뉴스**美보건당국, CAR-T 1회 투여비용 4~5억 中 “80% 지불” (04.09)**

바이오스펙테이터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전문학적인 가격의 CAR-T 치료제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CMS는 미국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고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가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런 CMS가 4월부터 노바티스 '김리아'와 길리어드 '에스카르타'에 대해 보험적용한다고 밝혔다. 김리아와 에스카르타는 지난해 FDA 승인받은 약물로, 1회 투여비용이 각각 45만 5,000달러, 37만 3,000달러에 달한다.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금은 김리아 약 10만달러, 에스카르타 8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CAR-T는 악성 혈액암에 놀라운 치료효능을 보이며 주목 받았으나, 전문학적인 가격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왔다.

바이오시밀러, 2023년 233억 3천만 달러 (04.09)

팜뉴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18년 59억 5천만 달러에서 오는 '23년에는 약 233억 3천만 달러로 연평균 +31.7%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급성장 요인으로는 1)바이오시밀러의 비용-효과성과 2)만성질환 환자 수 증가를 제시했다. 보통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품목별로 재조합 비코실레이티드 단백질, 재조합 글리코실레이티드 단백질, 재조합 펩티드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 글리코실레이티드 단백질이 향후 5년 동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으로 보면 '17년에는 유럽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로 화이자, 암젠, 산도스인터내셔널, 테바, 바이오콘, 닥터 레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노바티스, AAV9 유전자치료제 확보.. 'AveXis 87억 弗 인수' (04.10)

바이오스펙테이터

노바티스는 AAV9 기반의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AveXis를 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가격은 AveXis 주식의 종가를 기점으로 88%의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다. 이번 딜로 노바티스는 Type1 척수근위축증 희귀병 유전자 치료제와 향후 신규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AveXis는 선두 파이프라인 'AVXS-101'의 매우 우수한 임상결과로 일찍이 주목받았다. 노바티스는 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감한 딜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다. 올해 초 스파크테라퓨틱스의 희귀 유전자치료제인 '룩스투나'에 대한 미국외 판권을 가져오기 위해 1억 7,000만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키트루다 폐암시장 장악.. “1차 표준요법 대비 우수성 입증” (04.11)

바이오스펙테이터

암질환을 두고 벌어지는 면역관문억제제 경쟁에서 머크의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NSCLC)시장을 장악한듯 보인다. 머크는 임상 3상에서 기존 1차 화학치료요법 대비 키트루다 단독투여가 1차 종족점인 OS(전체생존률)에서 우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에서 1차 치료제로서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폐암은 사실상 암질환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진다. 그중 비소세포폐암은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MS의 옵디보는 이전 1차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한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규모가 가장 큰 비소세포폐암 시장이 키트루다에 넘어가게 됐다.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 개발 포기 (04.13)

팜뉴스

한미약품이 조건허가 아래 판매 중인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이 3상 임상을 완료해도 혁신성이 결여된다는 판단아래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이전에 '16년 9월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올무티닙 권리를 반환 받으면서 글로벌 개발 속도가 지연됐고, 최근 중국 지역 파트너사였던 자이랩의 권리 반환으로 이 약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약품은 올리타 개발을 완료해도 혁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으로 판단, 올리타의 개발을 중단하고 다른 혁신 신약 후보물질 20여개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간 동향

Coverage 금주 동향

Name	적정주가	종가	시가총액 (십억원)	Performance(%)		
				1W	1M	YTD
셀트리온	260,000	290,000	35,573.3	-0.7	-6.8	31.2
한미약품	680,000	540,000	6,148.3	4.3	5.7	-7.5
유한양행	280,000	253,500	3,095.1	8.1	17.4	15.8
휴젤	580,000	619,800	2,701.2	2.7	4.7	10.8
종근당	175,000	131,500	1,299.1	2.7	2.7	-0.6
에스티팜	43,000	44,700	833.9	-2.0	-1.4	35.3
보령제약	45,000	61,100	540.1	3.6	14.6	27.3
대원제약	25,000	20,800	397.3	4.5	-6.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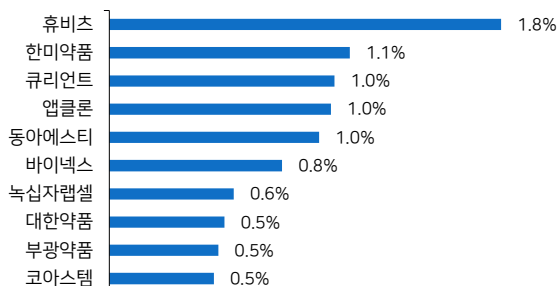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주간 수익률 Top&Bottom 3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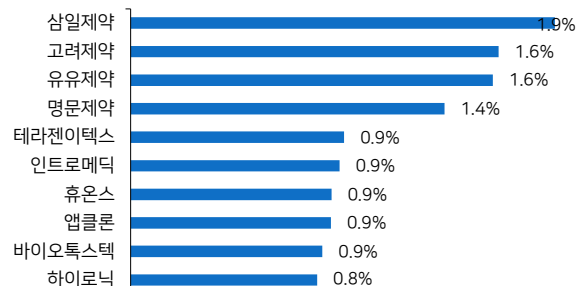
종목	종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formance(%)			5일 누적 순매수 대금(백만원)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셀루메드	19,400	374	75.6%	92.1%	98.2%	28	-340	863
프로스테믹스	14,650	665	66.7%	80.9%	104.9%	-42	4,267	-4,290
나이백	17,000	102	51.1%	64.3%	64.3%	-82	-1,235	1,269
오스코텍	28,700	782	-14.1%	44.2%	74.5%	-14,624	3,446	10,915
메디포스트	134,900	1,061	-9.2%	5.4%	15.3%	-19,516	7,287	12,978
인트로조	36,150	390	-8.5%	-13.1%	-7.0%	-1,015	-557	1,300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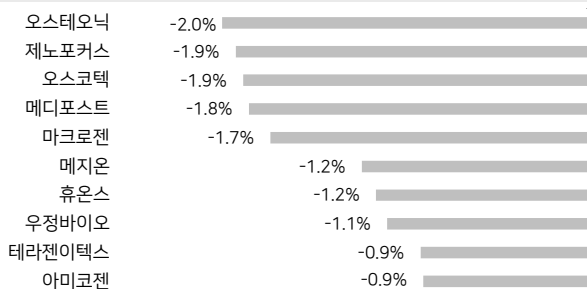
기관 매수 강도 상위 10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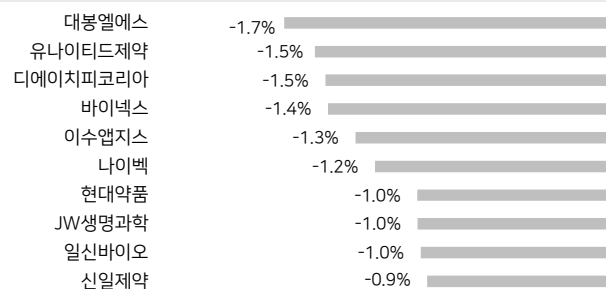
외국인 매수 강도 상위 10개 종목



기관 매수 강도 하위 10개 종목



외국인 매수 강도 하위 10개 종목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간 동향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수

지수	종가	Performance(%)			
		1D	1W	1M	YTD
NASDAQ	7106.7	-0.5	0.9	-5.0	-1.6
NASDAQ BIO	3330.1	-0.8	2.4	-6.0	-4.2
MSCI 글로벌헬스케어	225.3	-0.2	0.3	-3.1	-5.2
MSCI 미국헬스케어	259.4	-0.1	0.0	-4.5	-6.1
MSCI 유럽헬스케어	167.9	-0.6	0.7	0.9	-4.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

지수	종가	Performance(%)			
		1D	1W	1M	YTD
KOSPI	2,455.1	0.5	1.1	-1.6	-0.5
의약품	15,548.2	-0.2	4.7	8.9	25.7
의료정밀	3,281.0	1.6	0.9	-4.5	8.4
KOSDAQ	891.9	1.2	2.8	0.6	11.7
의료,정밀기기	1,875.6	1.8	3.0	3.8	12.1
제약	13,494.0	2.5	3.8	9.8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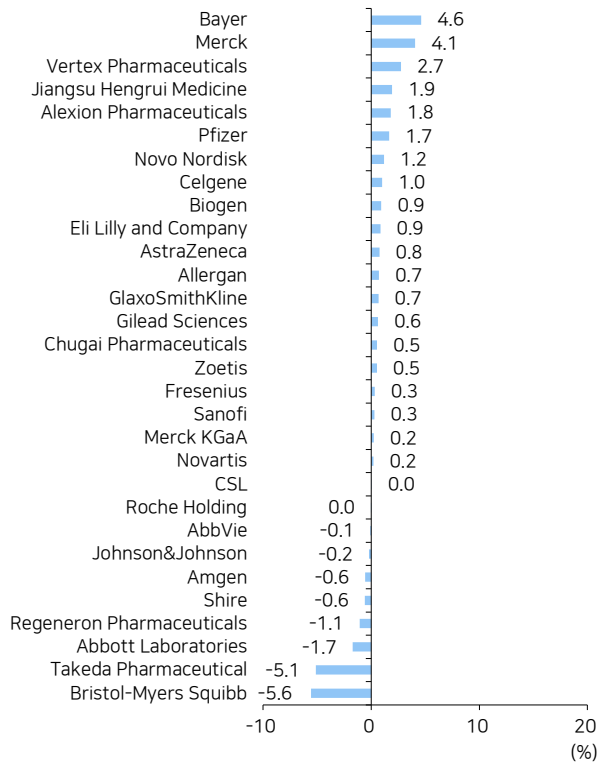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Top 25 제약/바이오 동향

종목	시가총액 (조원)	Performance(%)				PER		PBR		ROE	
		1D	1W	1M	YTD	18E	19E	18E	19E	18E	19E
Johnson&Johnson	374.6	0.1	-0.2	-1.8	-6.5	16.1	15.3	5.0	4.5	31.1	30.4
Pfizer	231.5	0.0	1.7	-0.7	0.3	12.3	11.9	3.1	3.0	26.5	28.9
Novartis	229.3	-0.7	0.2	0.2	-5.1	15.3	14.3	2.5	2.4	16.7	17.3
Roche Holding	210.2	-0.6	0.0	-1.7	-11.9	13.1	12.7	5.8	5.0	46.6	41.0
Merck	163.6	0.8	4.1	3.5	1.6	13.7	13.0	4.4	4.4	29.1	29.7
AbbVie	156.5	-0.3	-0.1	-20.1	-5.0	12.2	10.5	19.9	13.2	165.8	164.5
Novo Nordisk	133.8	-1.9	1.2	-3.0	-11.5	18.5	17.8	13.2	12.1	73.0	67.8
Amgen	122.4	0.3	-0.6	-9.6	-1.4	12.8	12.2	4.6	4.0	33.6	30.8
Abbott Laboratories	110.0	-0.6	-1.7	-6.6	2.5	20.5	18.2	3.0	2.8	18.7	19.7
Sanofi	110.0	-0.5	0.3	-0.4	-8.2	12.2	11.3	1.4	1.3	11.5	12.2
GlaxoSmithKline	108.0	-0.7	0.7	8.3	7.4	13.4	12.7	N/A	N/A	149.2	112.0
Bayer	107.1	0.4	4.6	4.0	-5.3	14.5	13.1	2.2	2.0	15.7	15.3
Gilead Sciences	105.1	-0.1	0.6	-5.4	5.0	11.7	11.4	4.6	4.4	33.3	36.5
Bristol-Myers Squibb	103.0	-0.3	-5.6	-11.5	-4.3	18.0	15.3	6.6	6.0	38.1	41.3
AstraZeneca	97.3	-0.7	0.8	4.4	-2.2	20.5	18.2	6.7	7.0	16.7	23.0
Eli Lilly and Company	92.8	0.5	0.9	1.2	-5.6	16.4	15.0	6.0	5.3	35.8	35.6
Celgene	72.3	-0.4	1.0	-0.6	-14.3	10.5	8.8	6.6	4.6	71.5	61.5
Allergan	61.6	-1.2	0.7	-1.1	0.5	10.5	10.0	0.8	0.8	4.1	4.3
Biogen	60.6	-0.8	0.9	-7.4	-16.7	10.7	10.2	3.3	2.7	30.2	26.0
CSL	59.9	0.7	0.0	-2.4	13.5	34.4	29.8	14.0	11.0	45.5	41.2
Shire	51.2	-2.1	-0.6	14.2	-7.5	10.1	9.4	1.2	1.1	12.4	12.7
Fresenius	46.8	-0.1	0.3	-0.7	-2.0	18.5	16.7	2.3	2.1	12.9	12.9
Merck KGaA	46.4	0.6	0.2	4.4	-9.4	14.1	13.1	2.3	2.2	15.9	15.9
Vertex	44.2	-0.4	2.7	-7.2	7.7	54.0	36.1	15.9	11.5	30.7	28.1
Zoetis	43.6	-0.5	0.5	-1.3	16.0	27.5	24.5	16.6	12.1	68.0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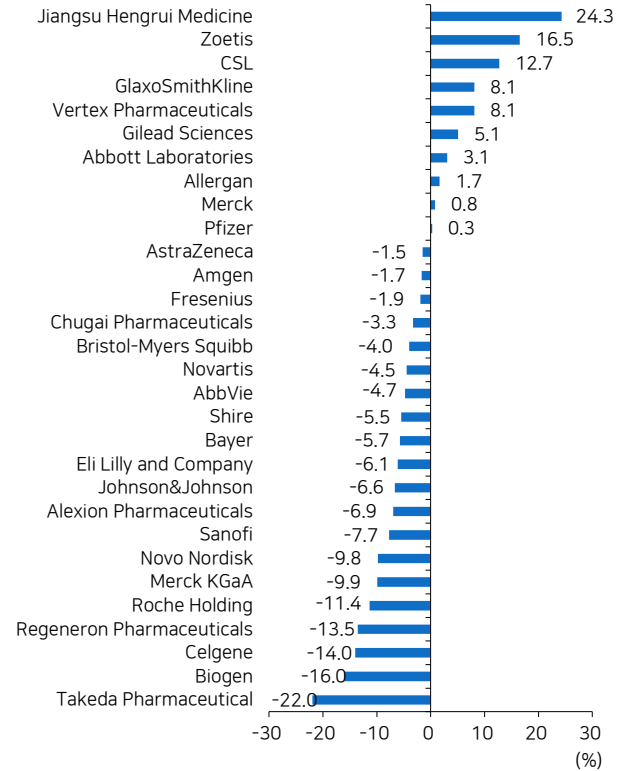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1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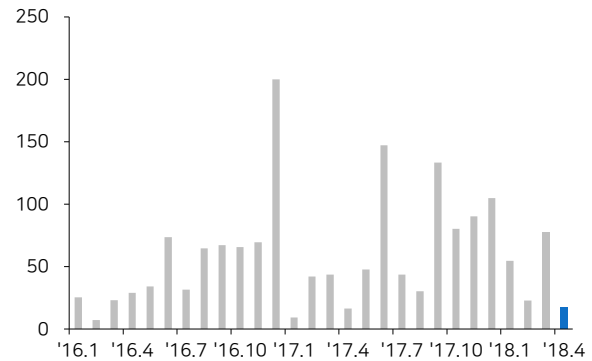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Numbers] 주요 제품 수출 데이터

면역관련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추정)

기간	수출금액(백만달러)	중량(톤)	YoY(%)	QoQ(%)
'17.3	43.7	7.3	87.9	-78.1
'17.4	16.5	3.0	-43.0	77.8
'17.5	47.7	8.6	39.0	12.8
'17.6	147.3	20.4	99.7	236.8
'17.7	43.8	7.8	38.1	164.9
'17.8	30.4	6.8	-53.1	-36.3
'17.9	133.4	24.3	98.4	-9.5
'17.10	80.5	15.7	22.3	83.8
'17.11	90.4	15.1	30.1	197.4
'17.12	105.0	24.0	-47.5	-21.2
'18.1	54.8	9.8	489.0	-31.9
'18.2	23.0	4.7	-45.5	-74.5
'18.3	77.8	14.4	77.8	-26.0
'18.4	17.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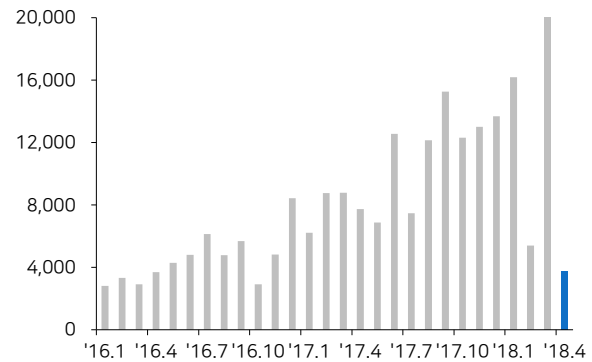
(백만달러)



의약품 기타 (보툴리눔 독소 추정)

기간	수출금액(천달러)	중량(kg)	YoY(%)	QoQ(%)
'17.3	8,781	8.8	201.1	4.1
'17.4	7,738	7.7	109.4	12.3
'17.5	6,878	6.9	59.8	-21.6
'17.6	12,551	12.6	160.9	42.9
'17.7	7,477	7.5	21.9	-3.4
'17.8	12,148	12.1	153.5	76.6
'17.9	15,264	15.3	168.2	21.6
'17.10	12,306	12.3	321.7	64.6
'17.11	13,021	13.0	169.7	7.2
'17.12	13,695	13.7	62.3	-10.3
'18.1	16,195	16.2	130.0	28.8
'18.2	5,374	7.5	-38.8	-58.7
'18.3	20,018	23.8	128.0	46.2
'18.4	3,76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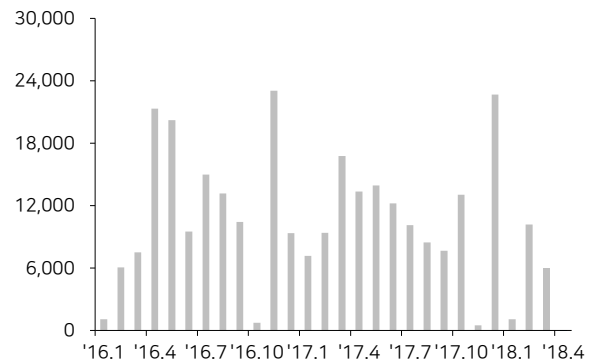
(천달러)



기타 화학공업제품 (Sofsbuvir 추정)

기간	수출금액(천달러)	중량(kg)	YoY(%)	QoQ(%)
'17.3	16,769	15.5	122.7	79.1
'17.4	13,374	32.9	-37.3	86.2
'17.5	13,941	23.0	-31.1	48.4
'17.6	12,212	15.4	28.4	-27.2
'17.7	10,122	5.0	-32.4	-24.3
'17.8	8,470	24.5	-35.7	-39.2
'17.9	7,676	7.5	-26.5	-37.1
'17.10	13,071	7.9	1,613.1	29.1
'17.11	495	20.1	-97.9	-94.2
'17.12	22,676	24.7	142.2	195.4
'18.1	1,085	5.6	-84.9	-91.7
'18.2	10,209	15.2	-31.8	1,194.1
'18.3	5,639	9.0	-66.4	-75.1
'18.4	34	1.0		

(천달러)



주: '18.4데이터는 4월 10일까지의 잠정치

자료: TRASS,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이태영)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6.0%
중립	4.0%
매도	0.0%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